

수서정리 업무 현장의 시각에서 본 학술연구의 유용성*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Usefulness of Academic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Acquisition and Cataloging Service in University Library

이 규 연(Kyu-Youn Lee)**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3. 학계와 현장, 링크 주체의 모호함 |
|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 IV. 해결방안의 제안 |
| 2. 연구의 방법 | 1. 학계-현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장 필요 |
| II. 현장의 학술연구 활용 현황과 실태 | 2. 도서관과 사서가 해야 할 일 |
| 1. 실무에 직접 참조할 만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인식 | 3. 학계가 해야 할 일 |
| 2. 연구논문(학술연구)을 활용하려는 의지 | 4. 국가기관의 역할, 그리고 목소리 모으기 |
| III. 현황에 대한 문제의 원인 | V. 마치며 |
| 1. 사서와 도서관의 문제 | |
| 2. 학계의 문제 | |

초 록

이 연구는 현장 사서의 입장에서 대학도서관 수서정리 업무에 관한 학술연구가 도서관 현장에 어떤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도서관과 사서의 측면, 학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둘을 링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 부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또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계와 현장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 사서의 현장연구적 자세, 학계의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검증 행위의 반복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서들은 학술연구로부터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하였으나, 도서관 현장과 학계는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으며 공존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수서정리 업무, 학술연구의 유용성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meaning and the usefulness of academic studies on acquisition and cataloging service(technical service), reveals problems and seeks solutions in terms of the librarian working in field, university library. The problems were found from the side of library and librarian, and from that of academic area, along with the lack of linking role of government agency. As solution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academic studies, this study suggests three points: the opportunities of communication of both sides, research based approach of librarians in the field and continuous field based verification from academic side. Currently librarians get limited help from the academic stud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eract, correlate each other as subjects for mutual prosperity.

Keywords: University Library, Technical Service, Acquisition and Cataloging Service, Usefulness of Academic Studies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과장(kyl244@sogang.ac.kr)

• 접수일: 2011년 8월 8일 • 초심사일: 2011년 8월 30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이라는 뚜렷한 현장을 가진 학문이다. 물론 연구 가운데는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이론과 철학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지만, 이 또한 결국은 언젠가 현장의 사서들에게 필요한 양분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장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은 학계에 있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좋은 연구대상들이 주어짐과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한 즉시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에게 까다로운 환경일 수 있다. 이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실사구시적 학문으로서, 도서관 현장의 업무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현실에 부적합하다든지, 실용성이 없다든지, 비현실적이라는 결과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학계의 이런 어려움을 현장의 사서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현장의 사서들도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 그러한 학술연구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 학계와 현장은 서로에게 끈끈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현장이 학계에서 생산되는 학술연구가 현장에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할 것이고, 현장의 사서들 역시 학계가 생산한 학술연구를 얼마나 현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의 장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도출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로 상생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장의 입장에서 문헌정보학의 학술연구가 어떠한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미 15년 전 연구¹⁾에서도 현장의 사서들은 학계의 연구논문들 중 '도서관이 부딪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의 이용률이 39.9%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논문'을 읽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입장을 인지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특별히 도서관 업무의 종류 중 자료관리에 해당하는 수서정리 업무 즉, 학술연구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세부적인 적용이 가능한 '테크니컬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학술연구들을 실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 조인숙,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1995), p.201.
논문의 성격을 (1) 문헌정보학분야의 보편적 사실을 밝힌 논문, (2) 우리나라 도서관이 부딪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 (3) 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의 한국적 응용을 시도한 글, (4) 기타-로 나눈 후, 이용도가 높은 연구논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집계하였다(논문 내 <표 3-4>).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서관의 현장 중 자료관리 즉, 수서와 정리 업무의 현장에 집중하여 학술연구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서관의 관중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수서정리 업무로 한정하였다. 이유는 관중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업무자의 서비스 지향점이 달라 유용성에 대한 시점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 중 대학도서관은 모기관의 학술적 성향에 의해 좀 더 학술연구를 접할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에 대한 유용성에 안점을 두어, 학술적인 성향이 강하고 학술연구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대학도서관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방식 즉 인터뷰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그 기저에 '현상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행위-자유로운 인터뷰-는 정량적 방법이나 귀납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세함을 잡아낼 수 있으므로,²⁾ 현장의 인식과 각종 현황을 알아냄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10인의 현장 실무 사서의 업무와 학술정보 활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중 8인과는 직접 심층면담을 하였고, 2인은 거리상의 이유로 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³⁾ 이 과정에서는 정해진 질문에서 출발하여도 인터뷰 과정 중 새롭게 도출되는 대화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추구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 수서정리 업무의 경력 사서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타관종과의 차이를 일부 가늠하기 위해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경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서 3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테크니컬 서비스에 종사하는 면담 대상 사서로 수서와 정리는 물론이고 전자자료 수서 경력자를 포함함으로써 학술연구물의 활용에 있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아울러 15년 전인 1996년과 2011년에 조사된 현장의 학술연구 활용에 관한 통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장 사서의 목소리에 객관적 데이터를 참조하여 현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현장의 학술연구 활용 현황과 실태

수서정리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의 사서들과의 면담 결과, 학술연구물에 대한 인식과 활용 현황

2) H. Seiffert, 학의 방법론 입문II(서울 : 교보문고, 1994), p.50.

3) 그 구성으로는 수서정리업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일반 실무자가 3인, 실무 책임자(개별 도서관의 구분에 따라 주임, 과장, 차장, 팀장이 이에 속하며, 현재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로서 5년 이상의 테크니컬 서비스 경력을 가진 사서가 7인이다.

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에 직접 참조할 만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인식

연구자가 면담한 사서의 50%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중에는 발표되는 학술연구물 자체가 수서정리 보다는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⁴⁾ 또한 수서와 정리 업무를 하는 사서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을 참조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에는, 실무관련 논문수의 양적 부족과 더불어 연구결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⁵⁾

수서: 관련 논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장서개발 전반에 관한 것은 있지만 수서 실무 자체에 이런 이론을 바로 적용할 수도 없고 ... 양적인 면에서 절대 부족이라고 본다. 실무자 세미나에서 토의할 만한 연구논문을 찾아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땅히 실무자들끼리 논할 만한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⁶⁾

정리: 정리업무는 어차피 새로운 트렌드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고 그렇게 실무에 직접 응용할 만한 논문이 나오기도 어렵다.⁷⁾

실무와 괴리된 연구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활용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다.⁸⁾

실제로도 사서들이 읽은 연구논문의 주제가 어떤 것이 많이 읽혔는지를 조사한 통계에서 관중대 주제별로 시사된 것에 의하면, 자료선택과 자료조직(수서와 정리)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경우 전 주제 대비 각각 6.8%와 9.4%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이것은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연구논문의 영향으로 '개선된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수서정리 현장은 평균 10% 초반대를 보임으로서 함께 조사된 도서관 경영, 정보봉사, 전산화 업무분야보다 학술연구의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⁹⁾

또한 최근 10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중 현장연구의 현황을 분석한 조사¹⁰⁾에서도 그

4) 면담대상 사서 A, B, D, I, G
5) 조인숙의 논문에서도 52.5%의 사서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고 조사된 바 있다(전개논문, p.206).
6) 사서 I
7) 사서 H
8) 사서 B
9) 조인숙, 전개논문, p.200 <표 3-3>, p.204 <표 3-8>.
10) 정계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181 <그림 3: 문헌정보학 현장연구의 연도별 변화 추이>, p.186 <표 9: 대학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 특히 <표 9>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서개발과 자료조직에 비해 도서관 운영,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전

양적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하나, 장서개발과 자료조직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연구 주제 분석에서는 각각 5.5%와 2.5%를 차지함으로써 테크니컬 서비스 현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술연구에 있어 수서정리 업무의 현장은 그 연구 대상으로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 결과 사서들이 학술연구를 통해 현장에 그것을 적용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업무개선에 효과를 추구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술연구물의 상대적 열세 속에서 수서정리 사서들이 실제 업무의 개선을 위해 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들은 연구논문 보다는 현장 자체의 노하우를 통해 개별 도서관 마다 알아서 지구책을 찾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식은 주로 개별 도서관의 스텝 매뉴얼이나 MARC 매뉴얼, 기술형식 표준 등의 업무지침서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¹¹⁾ 나아가 MARC과 AACR 등에 대한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다¹²⁾는 사서도 있었지만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연구논문의 활용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2. 연구논문(학술연구)을 활용하려는 의지

반면 위와 같은 학술연구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일부 현장 사서는 연구논문을 찾는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기대로 연구논문을 찾는다.¹³⁾

논문이든 교육이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자극이 되고 좋다고 본다. 그 연구들이 실무엔 바로 도움이 안되어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자극이 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 ...¹⁴⁾

기증, 폐기의 최근 흐름과 트렌드를 볼 때는 학술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¹⁵⁾

산화), 정보봉사 분야는 37.8%, 17.6%, 20.6%로서 현장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1) 사서 B, C, G

12) 사서 C

13) 사서 B, C, I, J

14) 사서 B

15) 사서 I

둘째, 직접적인 실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논문을 찾는다.

예를 들면 통합서지용 KORMARC으로의 변환과 같은 큰 당면과제가 발생할 때 표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연구된 논문을 찾아 확인하는 경우이다. 사서들은 표준이 변경되는 등의 큰 변화에 앞서 학계의 증명을 확인하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나 과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한다.¹⁶⁾

특히 자료의 수서과정이 근래에 개발된 전자자료 수서의 경우는 단행본 수서와 다른 방식으로 자료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무를 위해 연구논문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학술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수서, 이용현황,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적 수서 방법 등에 대해 꽤 많은 소개가 이루어졌고, 단행본 수서와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이 실무를 세팅해야 하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학술연구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셋째, 사서 개인의 직업적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학술연구물을 접함으로써 사서로서의 역할적인 수행에 필요한 수준을 높이거나 직업적 철학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상 교수 등의 이용자와 대면하여 서비스 함에 있어 사서 역시 어느 정도의 지식수준을 갖출 필요성¹⁸⁾을 느끼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계의 연구물을 접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⁹⁾

Ⅲ. 현황에 대한 문제의 원인

위의 현황을 볼 때, 비교적 학술연구를 잘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서가 학술 연구의 활용과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서와 도서관의 문제

가. 수서정리 업무 자체에 대한 인식 문제

현장에서 학술연구에 대한 활용이 낮을 때, 연구물에 접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어떠한 인식

16) 사서 B, D, E, J

17) 사서 J

18) 사서 B, J(전자자료 수서 담당: 전자자료의 경우 특히 이러한 자료를 많이 활용했던 해외에서 공부한 연구자들의 DB 활용 문의가 많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함).

19) 사서 B, C, E, I, J

문제에서 출발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는 수서정리 업무가 도서관의 다른 업무, 대표적으로 정보봉사 업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도서관에서 정보봉사 업무나 전산화에 치중하는 사이 수서정리 업무는 도서관이든 학계든 사서 자신들이든 트렌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큰 인식적 문제로 드러났다. 아웃소싱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라고 자조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를 위해 학술연구물을 찾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의 단초는 사라지게 된다.

수서 행위가 장서구성을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목록작업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목록의 원리와 본질적 가치에 대해 아는 것²⁰⁾이기에 본인이 분류하고 입력한 것이 이용자의 정보 탐색에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서로서의 철학이 부재할 때 눈에 띄지 않는 업무에 대한 가치도 망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학술연구를 활용해 업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애초에 방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업무는 도서관에서 보여지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외주나 아웃소싱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등, 사서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가는 것 같다. 이용자 서비스 중심이지 ... 그러다 보면 연구물을 찾을 의지가 없어진다. 또 이것들이 학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²¹⁾

그러나 사서들의 인식부족은 스스로가 그 문제성을 깨닫고 있고, 실제 업무를 오래하였을 때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사서들의 직업의식 부족도 문제다. 목록이 하나의 테크닉일 뿐이라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경향 말이다. 그러니 공부하고 더 나아갈 생각을 못 가지는 것이다.²²⁾

트렌드는 외주나 아웃소싱 등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내부에서 업무를 오래한 사람은 분명 연구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학계에서 실무 친화적인 연구를 해 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서로 대화했으면 한다.²³⁾

20) 박현영, “도서관 현장에서의 장서개발과 편목업무를 통해 본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2010, p.36.

이 글을 비롯한 많은 글에서, 이러한 수서정리 업무 사서의 인식과 철학 부재는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심도있게 학습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분류와 목록이 전공선택이 된 현실 등을 포함하여, 현장사서의 인식 문제의 출발을 대학 교육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1) 사서 I

22) 사서 C

23) 사서 I

또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경력을 동시에 가진 3인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수서정리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더 낮다고 하는데, 이는 도서관 운영자 마인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관리자 대부분이 “검색만 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로 판단되고 있다고 한다.²⁴⁾ 그러나 대학도서관에서도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사서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서정리 업무에 대해 이와 비슷한 인식으로 흐르면서 학술연구물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보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나. 업무의 성격과 환경

두 번째는 수서정리 업무의 업무 성격과 현장 사서들의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원인이다.

특히 정리업무의 경우, 새로운 트렌드를 그 때 그 때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목록 표준화위원회 활동에서 나온 태그별 연구 등은 MARC 편목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지만 떠오르는 이슈나 트렌드를 편목에 직접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²⁵⁾이다. 즉, 정리업무는 ‘표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술연구를 통해 나오는 편목 이론을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끔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도 적용에까지 일정한 타임레그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리업무는 학술연구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서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실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인식되어 학술연구물에 접근하는 데 하나의 선입견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실제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당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²⁶⁾로 귀결되고, 굳이 연구물을 찾는다면 ‘MARC 등 표준이 크게 변경될 경우’만으로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서 업무 현장에 종사하는 한 사서의 경우 수서라는 업무 자체가 각 도서관마다 선정작업부터 매우 다른 기준과 패턴을 가짐으로서 학술연구물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²⁷⁾고 하는데, 이것은 개별 현장마다의 업무처리 방식이 너무 달라 공통적 사례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공통의 논의가 주류인 학술연구물에 대한 접근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환경적 요소로는 업무가 너무 바빠 여력이 없다는 면과, 현재 업무 환경이 연구물을 통해 효과를 볼 수준이 아니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많은 사서들이 업무 자체에 쫓겨 학술연구물을 접하기도 힘들고, 가끔 접해도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으니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찾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⁸⁾

24) 사서 A, I, G

25) 사서 H

26) 사서 G

27) 사서 I

28) 사서 A, B, D, G, I

또 일부 현장의 경우, 정리실 업무 환경과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연구의 대상이나 적용 현장으로서 부적합한 곳이 있었다. 대학도서관이라 해도 스텝 매뉴얼도 갖춰져 있지 않아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하거나²⁹⁾ 만든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³⁰⁾하므로 학술연구물과 업무 사이의 접점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다. 도서관과 도서관계의 의식 부족

마지막 문제의 원인을 도서관과 도서관계로 확대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서들이 학술연구물의 많은 부분이 현실 부적합 또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지금 업무에 쫓겨서 연구물을 볼 여력이 없다거나 하는 원인들 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장애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먼저 학술연구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실체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적합한 연구 패턴은 학술연구자가 현장의 많은 사례를 조사하거나, 현장 사서가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연구자는 현장 자체 또는 현장 사서를 조사하거나 사서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장 사서가 직접 연구자가 되어 논문을 쓰거나 사례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술연구자와 사서가 함께 현장연구를 하거나, 사서가 직접 현장연구를 진행한 경우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1년의 조사³¹⁾에 따르면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가 전자와 후자 각각 10.4%와 11.9%로서, 연구의 성격이 '현장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현장 사서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업무가 바빠서라는 이유보다 더 큰 제도적인 원인이 있다.

논문들이 도서관 실체와 괴리가 있다면 사서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업무고과나 인사에 전혀 반응이 안된다는 점이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다 ... 결국 개인 관심사에 맡기니까 조직과 관련없이 이루지는 연구활동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³²⁾

특히 공공도서관 경력이 있는 사서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는 목록 자체에 긴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 연구물까지 찾을 의지는 더더욱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도서관도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공통적으로 진술되기는 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은 많은 도서관이 아웃소싱과 입력 확인 정도로 편목업무를 축소할 경우가 많아 환경적으로 수서정리 업무에 있어 학술연구물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단혀 있다고 하였다(공공도서관 동시 경력자 3인).

29) 사서 B

30) 사서 G

31) 정재영, 박진희, 전계논문, p.183 <표 6: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32) 사서 I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도서관 현장은 아직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실무자가 자신의 일을 연구하고 나아가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서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라는 중요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개인의 일로 치부함과 동시에, 그러한 연구 활동이 개인의 자기개발을 넘어 도서관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이 실무자의 연구는 업무고과나 인사와는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실무자에게 있어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한 것이 바로 '현장연구'라는 것이다. 학계와 연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렇게 실무자의 연구 활동 및 활동 참여가 위축되다 보면 실무자의 연구 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연구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기관의 목소리를 종합할 때 효율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지 못하는 등 미숙함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실무자의 현장연구 또는 연구 참여 의욕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철저히 업무 외적 활동으로서 도서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 학술연구와 현장간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또 하나는, 도서관 평가의 문제이다.

실제 도서관 평가에 있어서 목록 쪽 평가지표나 항목은 아주 적지 않은가. 이런 평가 지표가 확대된다면 실무에 대한 연구물을 찾거나 교육을 받는 데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생기겠지만 ... 목록이 베이스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은 '드러나는 평가'가 없는 것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³³⁾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수서와 정리 업무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료구입비와 종합목록 구축 관련으로서 전체 배점의 각각 7%와 5%에 그치고 있다.³⁴⁾ 대부분의 도서관 평가 항목이 수서정리 업무의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의 정도 또는 서지 DB화의 양적 증가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매우 적게 배점됨으로써 위와 같은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평가의 항목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냐에 따라 도서관과 사서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³⁵⁾도 사실이다. 평가에 끌려 다니는 것이라는

33) 사서 B

34) 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및 모델," 2010 대학도서관 평가 공모.

35) 사서 A의 경우,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평가는 대민 서비스 파트나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서나 정리의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술연구 논문을 찾거나 학술적인 모임에 참여할 의지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평가 양상은 우대받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평가 범주에 없는 것에 힘을 쏟을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관중을 넘어 전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실무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과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개인 평가와 관련된 것에 의해 현장연구의 의욕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 전체의 입장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서열 의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테크니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영역이 적은 것'은 자기 업무의 발전에 대한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계의 문제

현장 사서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학계에 대한 아쉬움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적용 적합한 연구의 부족

많은 현장 사서들이 학술연구물들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실과 괴리된 것을 느낀다³⁶⁾고 하였다. 예를 들어, 수서의 경우 장서 제적 기준에 관한 논문을 읽어 보았지만 그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실제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와 맞지 않아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정리의 경우도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디테일한 경험이 유용한 연구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은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거나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³⁷⁾

학계의 생각이 궁금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우리대로의 기준을 이미 실행중이다. 예를 들어, 편목 아웃소싱을 주제로 했을 때도 실제 일해 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 논리 도출은 실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고, 학계의 단독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³⁸⁾

즉, 현장의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가 구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 사서가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연구논문을 접했을 때 그것이 적용 적합한 실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 물론 미래적으로 유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으나, 현재 많은 사서들은 학계의 연구논문 중 많은 부분이 현실과 괴리되거나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다 보니 사서들의 학계에 대한 기대도가 낮아지게 된 것 같다.

36) 사서 A, B, I, F, G

37) 사서 B, C, H

38) 사서 H

실제 수서와 정리 업무 관련한 '연구주제를 기대하는 비율'³⁹⁾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11.6%와 8.6%로서 도서관 경영, 정보봉사, 전산화의 18.1%, 21.1%, 23.3%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인데, 이는 앞서 소개된 바 '연구논문으로 업무가 개선된 분야' 및 '현장연구의 주제분야'의 비율과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활용도나 기대도가 낮은 분야인 수서정리 업무는 연구 시도율도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의 성향을 볼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기대와 다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시도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소수라 하여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수서정리 업무 분야는 현장을 찾아 연구하기 어렵고, 그것을 자료관리에 활용했을 때 선정된 자료나 구축된 서지 DB라는 물리적인 결과를 통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분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논문의 수가 적게 생산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의 수요와 공급은 앞으로도 도서관의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갈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가 또는 가능하지 않는가에 앞서, 관련 주제분야에 대한 논문의 양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⁴⁰⁾

나. 학계의 수서정리 업무에 대한 이해

수서정리 업무의 경우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해봄으로써 알게 되는 노하우와 개념, 가치 등이 매우 크다. 실제 이 업무에 대한 경력을 상당기간 가진 사서라면 이러한 성격에 대해 공통적으로 증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화에서는 학계가 이 업무나 주제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학계의 시선도 문제다. (여러 학술모임에 참석해 보았을 때) 테크니컬 서비스에 대한 가치, 관념, 개념이 축소된 것에는 분류목록에 대한 연구자들의 좁은 시선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 적이 많다 ... 자료조직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고 직접적인 목록에 대한 철학을 가지는 과정이 학계에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학계에서는 분류목록을 외주 주는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 자체가 그 중요성을 모른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단순기술로 여기는 것 말이다. 실무를 실무답게 해 보면, 이것이 왜 철학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웃소싱을 쉽게 거론하는 이 분위기는 신뢰받기 힘들 것 같다.⁴¹⁾

39) 조인숙, 전개논문, p.206, <표 3-9: 사서들이 기대하는 연구주제>.

40) "수서는 관련 논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발언한 사서 I의 경우, 꾸준히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등 상대적으로 학술연구와의 접점이 많은 실무자였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을 찾을 때 마다 적합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였다.

수서정리 업무의 실무자들의 학계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재교육의 한 방법인 대학원 진학의 지와도 맞물려, 자신들이 직접 수학하며 학계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전에 그다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굳이 대학원을 간다고 해도 정보봉사나 전자도서관 등 다른 분야라면 모를까, 이 분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⁴²⁾

다. 현장 적용 가능한 학술연구에 대한 교육이나 발표의 기회 부족

학술연구를 현장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실무를 하는 사람의 일상은 실무에 함몰되어 실무 외적인 연구 결과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아주 강한 학구적 성향이 있든지, 그렇지 않고는 외부에 그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려있든지 둘 중 하나는 만족되어야 한다.

현장 실무 사서들에게 이러한 학술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⁴³⁾들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은 실무자 강의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실무자에게 있어 학회 참석은 흥미가 없다⁴⁴⁾는 답변으로 이어졌고, 다수의 실무 사서가 실무자 강의와 실무자 세미나⁴⁵⁾를 선호하였다.⁴⁶⁾ 이는 학계 중심이 아닌 실무자가 직접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례 연구에 포함된 실무 방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직접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술결과물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실무중심 교육이 유용하다는 생각도 사실이다. KERIS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실무자(사서)가 하는 강의를 선호하지만, 정리업무쪽으로는 KERIS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실무자용 교육이나 세미나 외에는 거의 교육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 특성상 이론적인 부분 보다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더 유용하기도 하고 ...⁴⁷⁾

실무자 강의 같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직접 실무를 해 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싶고,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접하고 싶다.⁴⁸⁾

41) 사서 C

42) 사서 A, B, C(업무 발전과 대학원 진학을 연계하여 발언한 3인의 면담 내용이다.)

43) 학회지나 학위논문 등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학회나 각종 실무자 교육, 대학원 등 학술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44) 사서 A

45) ex: 국립중앙도서관의 실무자 세미나, KERIS 실무자 교육 및 분과 모임 등.

46) 사서 A, B, C, D, E, G, J

47) 사서 D

48) 사서 G

이들 중의 대부분은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학술연구 결과를 경험했을 때, 분명히 수서 정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현업과의 고리를 찾지 못하여 실망하거나 다들 후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으며,⁴⁹⁾ 실제적으로 이러한 발표가 먼 미래 도서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육이나 세미나에 대한 참석 의욕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연구논문들이 실제로는 학계에 많을 것 같은데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탐색을 하지 않으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공개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⁰⁾며 안타까움을 표한 현장 사서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학계에서는 현장에 소개할 만한 좋은 학술논문을 실무자들에게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연구논문이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누군가가 알아서 찾거나 찾지 못하게 방치한다면 학계나 현장이나 그만한 손해는 없을 것이다.

3. 학계와 현장, 링크 주체의 모호함

앞서 언급한 답변 중 “단독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사실 어떠한 연구도 연구자 한 사람의 목소리일 리는 없지만, 여기서의 이 표현은 문헌정보학이 현장을 염두에 둔 실용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물의 사용자인 현장사서에 의해 소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내용이 연구논문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와 현장의 부분집합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단독 주장이 아닌 학계와 현장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함께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를 들자면, 실제 현장을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의 연구자별 분포⁵¹⁾를 확인한 결과, ‘현장연구’라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자와 사서⁵²⁾가 함께 연구논문을 생산한 비율은 10.4%로서, 사서가 단독으로 연구한 11.9%보다 낮았고, 나머지 학계 연구자들이 연구한 비율의 합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무자와 연구자가 각자 공동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실무자와 연구자가 알아서 실효성 있는 현장연구물을 도출해내길 바라는 것도 너무 과한 기대이다. 특히, 수서정리 업무에 있어 실무와 관련된 새로운 표준안을 내거나 표준적 업무과정을 이끌어내는 연구는 국가적 기관의

49) 사서 A, B, C, H, I

50) 사서 C, D, E, J

51) 정재영, 박진희, 전계논문, p.183 <표 6: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교수/사서/강사/학생/연구원/교수&사서/교수&교수/교수&학생/교수&강사/교수&연구원/기타.

52) ‘교수와 사서’로 분류되어 있음.

개입 없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연구결과물이 나온다 한들, 시행의 부분에 있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기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연구자 그룹과 실무자 그룹을 연결하고 표준안을 책임있게 시행시켜야 할 도서관 관련 국가기관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역할이 겹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 모호하다.⁵³⁾

실무를 종합하고 모아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며 시행을 이끌어야 할 역할은 누구인가?

각종 회의나 세미나들이 산만하게 존재하지만, 링크 역할 없이 기관들과 모임이 나열되고 있다.

도서관 정책 결정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큰 주제만 이야기하지, 실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고, 실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곳은 KERIS 분과회의 정도인데 ... 실제 그것을 필드 차원에서 정리해 주는 역할이 없다. 단지 실무자의 애로사항만 가득할 뿐. 이는 실무자의 연구자적 집적행위가 없고, 학계에 전달하여 공유할 링크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 기관들은 예산을 따 사업을 하는 단위로서의 역할만 강조되어 있고, 도서관 전체 맥락으로 실무진과 연구진을 연결하고 이끌어가려는 안목과 역할 능력은 부족하다.⁵⁴⁾

이러한 링크 역할에 있어 도서관과 학계를 이끌어 시행할 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현장 적용성이 높고 유효성 있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고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꼭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IV. 해결방안의 제안

1. 학계-현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장 필요

위의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 본 바, 연구의 현장 실효성을 위해 학계는 현장이 필요하고, 또 현장은 그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상생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학계와 현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으며, 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53) 사서 C, H

54) 사서 H

가. 실무자 모임의 활용

위의 조사를 통해, 현장 사서가 가장 선호하는 정보 채널인 '실무자 모임'을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한다.

실무자 세미나와 실무자 강의 등의 모임은 현장 사서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술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는 연구자와 실무자가 함께 소통하며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임의 목적에 맞게 실무 중심의 이야기로 시작되겠지만, 실무자와 연구자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학계는 현장의 현황 및 정보를 수집·수렴하고, 현장은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현장 사서들이 학술연구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들이 선호하는 실무자 모임도 그나마 기회가 많지 않은 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⁵⁵⁾ 그렇다면 1차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KERIS 등은 실무자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연구자-현장 실무자 간의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⁵⁶⁾

대표적인 사례로 실무자 모임을 활용하자고 하였지만, 다매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온라인의 커뮤니티 등으로 학계와 현장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은 숙제 중 하나이다. 먼저 기존의 사서 커뮤니티와 학회 커뮤니티의 온라인 활성화를 공유와 대화의 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⁵⁷⁾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소통을 통한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이론이란 실무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아이디어와 사고의 확장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 실무자가 필요로

55) 사서 B, C, D, I

56) 사서 D

57)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서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 그것의 활용 가능성을 예시로 들어 보았다.

하지 않는 새로운 개발물들이 난무하는 듯한 경향도 있다. 좀 더 서로 간격을 줄여 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장들은 연구결과들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⁵⁸⁾

학계와 실무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욱 현장에 대한 객관성 즉,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현장연구의 객관성은 연구자와 현장 사서 양측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의 신뢰성은 다시 연구 결과의 소비자인 현장 사서들을 학술연구물에 접근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 관련 업계까지도 함께 모이는 장

학계의 동향, 실무의 동향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와 관련된 업계의 동향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전자자료 세미나가 가장 실제적인데, 이곳에는 사서, DB 벤더, 학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 ... KESLI 세미나 같은 데는 교수-실무자-DB 업체를 링크해 주는 모임의 실례이다. 실제정보를 가장 많이 얻게 되고, 이것이 실무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곳에서의 실무자 발표는 사례를 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DB 벤더의 발표는 DB에 대한 새로운 정보 입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계의 발표는 현재 다루는 전자자료 외의 다른 전자자료 수서 즉, 향후의 수서 방향 파악에 필요하다.⁵⁹⁾

이와 같이 DB 업체 뿐 아니라, 도서관 업무 시스템 업체나 웹 프로그램 관련 업체, 수서와 관련된 자료 유통 업체 등 관련 업계의 동향에 대해 학계와 실무자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통하여 학술연구의 현장 실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도서관과 사서가 해야 할 일

가. 실무자의 정체성과 연구적 자세

목록 실무자 역시 자체적으로 현업에서 만든 지적 축약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사서 자체가 기본적 연구자세라는 것이 없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중심에는 분류 목록하는 사서의 분명한 자기 역할 의식이 있어야 한다.⁶⁰⁾

58) 사서 C

59) 사서 J

60) 사서 H

학술연구 자체의 실용성 유무라든가 현장 사서로서 연구물을 이용하려 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명제가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장 실무자가 자신의 현장에 대한 연구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연구를 통해 이 현장을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무자 그룹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장 스스로가 현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서관도 트렌드가 아닌 것에 소홀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트렌드인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에 대한 고민과, 균형을 위해 이것을 연구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학계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분명 부족한 것이다. 이에, 실무자는 수서정리 업무 즉, 자신의 현장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와 같은 자발적인 연구자세를 갖추고 실제 현장연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 수서정리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트렌드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나. 도서관의 제도적 지원 장치

이렇게 현장의 실무자 자신이 인식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면, 그가 소속된 기관인 도서관도 현장 실무자가 생산적 연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앞서 한 현장의 실무자가 토로한 바와 같이 실무자의 연구활동 내역을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장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장연구물을 내·외부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도서관 현재 동료 뿐 아니라 후대에도 좋은 현장 실례를 전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공유하는 도서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발전을 넘어 이러한 활동은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장의 재교육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현장 이전의 교육'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업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현장 이후의 교육'이라는 면에서 도서관은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고 실용적 현장연구를 상호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협회 및 학회 등의 활동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회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실무자들이 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뜻 등록하게 되지를 않는다. 학술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실무는 실무대로 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기회로 학회 참가를 활용하고 싶기도 하다. 사실 실무자 강의도 가끔 뻥하게 들릴 때도 있고, 도서관 마다 실무가 달라서 적용이 힘든 경우도 있다. 학회는 개별 도서관을 넘어 전체적 현황에 대한 논문 발표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⁶¹⁾

현재는 사서 다수가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원인이 더 크다. 또 개별 등록이 낡은 행위인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이 협회나 학회 등의 활동이나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고, 하나의 강령으로 독려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예산 배정과 더불어 운영 항목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각 도서관 협회 및 학계에서 현장연구논문과 수범사례를 모집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있어 이러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장 사서가 직접 연구 또는 학계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실용성 있는 학술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실무자 개인의의지에만 맡기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실용성 있는 현장 정보에 대한 공유의식과 현장연구의 중요성이 도서관 운영 마인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실제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구축되기까지 도서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학계가 해야 할 일

가. 현장성을 위한 기본적 요건: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적극성

문헌정보학 강단의 언어가 도서관 현장에 다가서기 위한 현단계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흥미이다 ... 흥미있는 글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 것, 둘째 현장 중심적일 것, 셋째 쉬울 것.⁶²⁾

15년 전 이 글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계의 글은 지금보다 분명 현학적이고 현장에 대한 역동적인 연구의 수도 적었다. 그러나 현재는 학계의 이러한 자성의 소리에 많은 현장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를 바라는 근원에서 좋은 글쓰기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처럼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현장 중심적이며 게다가 쉽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수서정리 업무의 현장은 매우 세밀하고 업무의 구력에 따라 전문성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성향의 현장에 무엇인가를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술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수서정리 업무의 성격상 그 실무자는 연구결과를 접해보고 아, 적용할 수도 있겠다, 향후 10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전혀 일이랑 맞지 않는다, 연구까지 할 내용인가 등의 반응이 다소 즉시적일 수 있는 분야이다. 그 속에서 연구자가 실용성 있는 현장연구를 발표하려 할 때의 부담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이 분야의 연구자는 현장에 대한 더 깊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수집·수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적극적으로

61) 사서 I

62) 김정근, 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서울 : 한울, 1996), p.15.

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 지표의 설득력 확보

사서가 학술정보를 참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 필요한 표준 그 외에 각종 아티클을 참고하지만, 국내 학자들의 지표가 크게 설득력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 결국 실무와 연결되지는 못한다. 공동분모 없이 각자 만드는 지표를 제안하는 근거가 실무자의 각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즉 케이스 스터디들의 안전한 조합이 필요하다.⁶³⁾

이것은 학술연구물이 실무자에게 있어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대표적인 발언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여러 사례 연구를 안전하게 조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국 설득력 있는 지표를 위해서는 현장을 통해 직접 검증하는 행위의 반복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실무에 당장 적용해 보기 힘든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견해를 검증 받거나, 설득해 보거나, 현실성 있는 지표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현장에 학회지 등 학술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공

앞의 글들을 통해 현장사서들의 일부는 실무를 위해 학회지나 기타 연구논문을 찾고는 한다⁶⁴⁾ 하였고, 인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도서관 관리자와 실무자들은 주로 학회지와 학위논문을 통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성과에 접근하고 있다”는 학술연구의 현장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회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같은 기관에서의 학회가입과, 나아가 실무자 개인이 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의 확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학회지 접근성 포함). 현장의 실무자 개인이 알아서 학회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관에서의 제도적 연결과 더불어, 학회에서도 현장연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자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대상인 현장 사서를 학회에 참석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로 충분하다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이라는 기관과 연계하여 참석을 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외에도 학계 쪽에서 좋은 학술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배포될 수 있는 유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용성이란 수요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평가되어질 수 있다. 만약 수요자의 측면에서 존재를 알 수 없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좋은 논문을 생산하고도 읽히지도, 활용되지도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63) 사서 H

64) 사서 F, D, J

특히 현장에 학술연구물이 원활히 배포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학계와 현장이 각자 별개라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앞서 현장 사서들은 학회에 참석하거나 학계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은 학술논문이나 웹 DB와 같은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 사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학회나 학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장에 있어 이러한 학술연구에 대한 존재감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대상에 가깝고 본인 연구자로 참여해야 할 대상으로서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만약 현장 사서의 연구와 참여, 그리고 그 연구물의 활용 등이 학계도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계의 이에 대한 방법론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회와 학회지의 기본 기저나 방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장의 실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섹션을 도입한다면 사서가 학회에 참여⁶⁵⁾하거나 학회지에 접근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모임이나 연구 간행물은 학계와 실무자의 용도구분이 명확하여, 학계나 학술 연구물에 대한 실무 사서의 적극적인 참여나 활용을 바라기에는 그 답이 높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나 활용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정 부분 두 집단 사이의 공통분모나 크로스오버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필요가 있다.

4. 국가기관의 역할, 그리고 목소리 모으기

앞서 학계와 현장 간의 연결 즉 링크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국가기관의 역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 현장 사서의 입장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는 도서관 입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국가적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으로 귀착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 KERIS 등 이 기관들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도 없고, 중심축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⁶⁶⁾ 때로 역할이 겹쳐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할 때도 있다. 국가적 소속도 제각기이다. 이러다 보니 단위 도서관을 조직화하고 실무자와 연구자 간의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누구의 어떠한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수서정리 업무의 표준에 있어 표준안을 마련하여 국가기관이 공표 및 시행을 할 때 막상 실무에 적용할 수 없는 안이 나온다면 어떨까. 이것을 위해 과정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은 학계와 현장을 올바르게 링크함으로써 학계와 현장이 인정할 가운데 국가기관이 보장하는 안전한 표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5) 이 부분은 사서가 현장과 동시에 학계에 속한(대학원 수학 등) 경우를 제외한, 일반 실무 사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66) 앞서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사업이 난립 또는 중첩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 사서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해당 기관-학계-도서관이 함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질서 확립의 권한을 가질 중심기관을 선정하고 그 역할들을 조정하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별도의 후속 연구사업과 토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를 몇 퍼센트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 경우, 국가적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관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 폐기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안도 정해지지 않았다.⁶⁷⁾ 만약 최소 폐기조항이 설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실무와 학계의 공동연구를 국가기관이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 최소량이 정해지고 공동폐기서고 같은 것이 마련되어 폐기에 대한 안전망이 생겼을 때 도서관은 안심하고 폐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은 말처럼 쉽지 않다.⁶⁸⁾

이 사서의 경우,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일차적으로 소통의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힘들거니와, 결과물이 어딘가 있다 해도 개별 사서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어렵다고 하였다. 목록의 경우도 표준의 적용을 통해 실무를 하는 분야인데,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 학계와 실무를 연계하여 실용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표준을 공표 및 시행하지 않으면 안전하지도,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링크 역할 요구뿐만 아니라,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에 있어 좀 더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학회는 학회대로 분리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산재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현장은 현장대로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만 주장 한다면 편목, 폐기, 납본 등 국가적 표준에 의하거나 표준안이 필요한 업무는 늘 각자의 위치에서 제자리 걸음식 제안들로만 산만하게 존재할 뿐이다.⁶⁹⁾ 그러므로 학계와 현장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정리하고 안전한 표준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기관에 정당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용성 있는 현장연구가 다수 도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V. 마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현장 사서의 입장에서 특히 대학도서관의 테크니컬 서비스 즉, 수서정리 업

67) 폐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3.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 <<http://www.mcst.go.kr>>).

그러나 위의 현장 사서가 요구하는 기준은 "최소 폐기조항"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최소 폐기량에 대한 표준이 전혀 없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이다. 최소 폐기기준이 없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도서관은 폐기를 저어하게 되고, 장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폐기가 지연 또는 유기되고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68) 사서 H

69) 사서 C, H, I 등 표준이나 표준안이 수서나 정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하는 실무 사서들이 현 상황에서 그러한 제안이 없는 것에 갈증을 호소하였다.

무 현장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의 학술연구가 현장에 어떠한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풀어 가야 좋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의 학술연구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술연구 중 실무에 직접 참조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그런 중에도 동향파악과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서의 모습도 나타났다.

둘째, 현황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1) 사서와 도서관의 문제로서, 수서정리 업무는 오랜 기간 일했을 때는 그 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업무가 시류 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는 인식이 생겨 학술연구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보시키려는 의지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 업무는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어 업무 변동의 유연성이 적은 편이고, 때로 개별 도서관의 처리 방식이 많이 다르므로 학술연구 결과를 즉시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서관은 현장연구에 사서가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개인의 일로 치부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의미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계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평가에서 이 업무들을 축소 또는 소외시킴으로써 낙담한 실무자는 학술연구 활용에 대한 의지조차 갖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 (2) 학계의 문제로서, 현장에서 보기에 학술연구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현장 적용에 부적합한 연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연구물이 생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현장이 학술연구를 현장이 접할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양질의 연구결과가 사장될 위험성을 드러냈다.
- (3) 업무에 있어 일정 필요한 표준안 마련은, 국가기관이 학계와 현장을 연결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연구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 역할을 추진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기관의 주체와 역할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를 위해 학계와 현장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필요하므로, 현장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 관련 정보채널인 실무자 모임을 학술연구의 유통 경로로 활용하여, 학계는 현장의 정보를, 현장은 학술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과, 학계 및 현장 뿐 아니라 관련 업계까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2) 사서는 현장에서부터 연구적 자세가 필요하며, 도서관은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개인 평가의 반영, 재교육, 학회 및 협회 참여 활동의 지원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3) 학계는 이 연구분야의 특성상, 현장에 대한 접근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하며 연구과정중 실용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현장을 통한 직접적 검증 행위를 반복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사서가 학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논문들이 현장에 활발히 소개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의 유통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 (4) 마지막으로 단위도서관을 조직화하고 실무자와 연구자 간의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도서관 관련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 한 예로 국가기관이 안전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계와 현장이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황 속에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의 입장에서 가졌던 학술연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학술연구 자체의 활용 이전에 무관심으로 흘렀던 저변의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의미있게 생각된다. 또한 현장에서 학계에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학계와 도서관은 상생을 위하여 상호협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학계에서도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연구결과가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활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현장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활용성 높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면담자료 및 서면조사자료〉

- 사서 A와의 면담, (2011. 4. 6. 12:00)
- 사서 B와의 면담, (2011. 4. 6. 15:20)
- 사서 C와의 면담, (2011. 4. 7. 10:00)
- 사서 D의 메일수신, (2011. 4. 14. 11:53)
- 사서 E의 메일수신, (2011. 4. 14. 15:58)
- 사서 F와의 면담, (2011. 4. 28. 10:15)
- 사서 G와의 면담, (2011. 4. 28. 12:30)
- 사서 H와의 면담, (2011. 4. 29. 10:45)
- 사서 I와의 면담, (2011. 4. 29. 14:00)
- 사서 J와의 면담, (2011. 4. 29. 16:30)